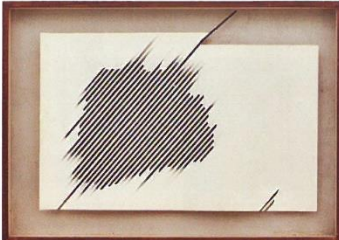


김용익\_Endless Drawing 전

April, 2018 | by editor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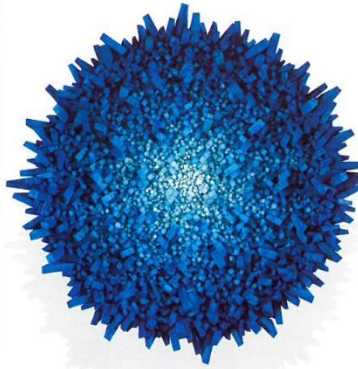
preview



〈빛금〉  
(1983-2012)

김용익\_Endless Drawing 전

**3.20-4.22 국제갤러리** 순수미술이라는 범주 안에서 모더니즘적 관행의 지배적 특성에 균열을 내는 작업을 지속해온 김용익은 작품에 대한 자의적 훼손과 방치뿐 아니라 낡고 허물한 재료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198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드로잉 작업 40여 점을 처음 선보인다.



(Aggregation 17-SE074(Star29))

전광영 개인전

**4.6-6.5 PKM & PKM+** 한지를 오브제로 작업하는 전광영은 총총한 수천 개의 작은 한지 조각들을 하나 하나 모아 천원 염색으로 물들여진 다채로운 색으로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작품을 만든다. '집합'이라는 작품 이름처럼 한국 사회 속 개인과 집단이 역사적으로 축적해온 경험과 이야기를 작품에 하나로 '집합'시켜 한국적 정체성을 풀어낸 작가의 작품세계를 들여다보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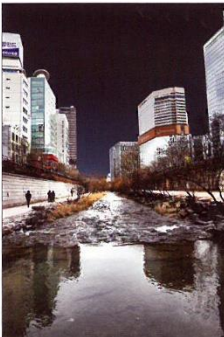
(Nothing To See)

아흐마드 자키 안와르\_내 그림자의 그림자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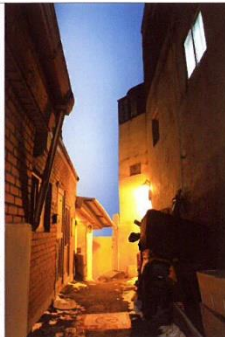
**4.3-4.28 백아트 갤러리** 말레이시아의 국민화가로 불리는 아흐마드 자키 안와르(Ahmad Zakii Awar)의 대표작들이 한국을 찾는다. 무슬림이면서도 종교에 편향되거나 현대미술의 경향에 휩쓸리지 않고 꾸준히 자기만의 세계를 정진하는 그는 종교적으로 금기시되는 돼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등 상징적인 이미지를 소재로 작업한다. 그의 페인팅 작품 15점이 국내 최초로 공개된다.



〈산〉



〈Batiment du Jour〉



〈Coin de la rue〉

권경용\_엑스트라올리나르 (Extraordinaire) 전

**3.6-4.25 카이스트 경영대학 리서치 &아트 갤러리** 낮의 풍경에 밤 하늘이, 반대로 밤의 풍경에 대낮의 하늘이 공존한다면 어떠할까. 사진작가 권경용은 낮과 밤을 주제로 가상의 장면을 현실적으로 편집해 착시효과를 보여준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일상 속 현상들을 비이상적, 비현실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이 세계를 반성적으로 성찰해보는 색다른 시선을 제시한다.

이순종\_백만대군 전

**3.6-4.21 CR Collective** 1990년대 한국 페미니즘 계열의 작가로 평가되어오던 이순종은 독특한 에로티시즘으로 한국성을 탐구해왔다. 전쟁이나 테러 같은 심화된 갈등의 무모함과 잔인함 그리고 진영논리의 정치성이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자연스런 생명성을 그만의 색깔로 보여준다.